

 <b>보건복지부</b>	<b>보 도 참 고 자 료</b>			
배 포 일	2020. 5. 8. / (총 9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홍 승 령 김 민 주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단 사무국	과 장 담 당 자	방영식 (직무대리) 조 호 식	전 화	044-202-2903 044-202-2926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담 당 자	이 재 식 류 성 훈	전 화	044-201-2151 044-201-215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과 장 담 당 자	김 성 일 김 철 희	전 화	043-719-2101 043-719-210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 문화 개선 대책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현황,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방역 추진 계획, ▲코로나19 계기 외식 문화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방역 주체로서의 역할을 잘 실천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연휴 기간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에 대해 한 명의 감염자로 인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1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 출범에 따라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관계 부처 및 산·학·연·병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 범정부 지원단 회의 2회 개최(4.24, 5.8), 실무추진단 회의 2회 개최(4.17, 4.29), 3개 분과별(치료제분과, 백신분과, 방역물품 및 기기분과)로 매주 1회 전문가 협의

- 범정부 지원단 산하에 설치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대한 1:1 밀착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 그간 제기된 기업과 전문가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확보를 지원한다.

-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및 임상평가를 질병관리본부 연구과제로 선정(5.1.)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성분채혈기 임대 등을 통해 완치자 혈장채취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연구용 혈장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또한, 혈장 채취 가능 기관, 코로나19 검사 등 완치자 선별기준, 완치자 혈장 검사 및 동의방법 등을 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5.12.)한다.

- 둘째, 생물안전시설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 생물안전시설을 민간기업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을 구성(5.6.)하였다.
  -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지원팀’은 민간 수요 접수, 우선 순위 및 연계 기관 검토, 생명안전시설 운영기관 협의, 안전 관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셋째,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더욱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 21개사를 선정하여, 규제·R&D·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심층 상담 실시 (5.6일, 5.7일)
- 앞으로 전문가 포럼 개최(5.15.) 등을 통해 치료제·백신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물안전시설 이용 등 기업 요청 사항은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 2 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2년부터 운영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 체계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영업자와 함께 생활방역 실천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 정부·지자체·음식점 영업자 및 협회가 참여하여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8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
  - 그간 사업을 통해 개인별 소형찬기 제공, 개방형 주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간소한 상차림, 영양을 고려한 좋은 식단체 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또한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는 침방울로 전파되므로, 특히 일상 속 음식문화에서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개인 용기 사용, 덜어 먹기 등 개인위생 실천 사항에 더하여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을 외식영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지침에 생활방역 지침을 포함하여 공무원·영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하고,
    - “생활방역수칙-음식점편” 동영상 제작하여 영업자 교육 시 사용하며, 외식·급식 시설 내 홍보물 게시 등 생활방역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 \* 위생관리 매뉴얼 : 식품접객업소, 급식소, 어린이집·유치원 등

### 3 코로나19 계기 외식문화 개선 추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된 이후 외식소비 회복에 발맞춰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외식 문화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외식 소비는 점차 회복 중이지만, 실내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식사하는 외식업소의 특성상 방역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외식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 「슬기로운 외식생활」을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관련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외식단체 등이 협력하여 외식업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침 준수를 적극 홍보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해 외식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외식단체는 외식업소 위생교육에 지침 내용을 포함시키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덧붙여 언론매체(신문, TV 등)와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외식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한다.
-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준수할 내용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제작하여 알리는 한편, 5월 중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 외식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외식문화 개선 우수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위생과 방역,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공간 배치, 식기 제작 및 소비자 준수 사항 등도 함께 검토한다.
- 정부는 외식문화 개선에 외식업소가 자발적으로 외식문화 개선에 나서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노쇼, 갑질 등 외식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까지 캠페인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